

보도설명자료 (‘21. 2. 24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「에너지안보,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」, 「자원개발 하라더니 한순간에 적폐몰이」는 산업부-KAIST가 공동집필한 “탄력성장” 책자를 일부 과장 해석·왜곡한 것임

(2.24, 서울경제 보도에 대한 설명)

- ◇ 「탄력성장」 도서는 산업부와 카이스트가 에너지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-19와 같은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의 위기 진단과 대응 방안에 대해 학습한 결과를 담은 것임
- ◇ 2.24일 서울경제 <에너지안보, 정치 외풍에 흔들려선 안돼>, <자원개발 하라더니 한순간에 적폐몰이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보도내용

- ① “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 했다”
- ② “탈원전 프레임, 정권 교체되면 180도 바뀔지 몰라”
- ③ “재생에너지 출력 들쭉날쭉, 원전없이 전력 수급 불안”
- ④ “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결기를 보였다”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“정치 외풍에 국가 에너지 대계가 뒤틀리는 일이 빈번한 현실 인식에서 출발 했다”
 - 동 책에는 “정치 외풍” 관련 내용은 없으며 코로나-19가 지속되면서 에너지 정책에 다양한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산업부-카이스트-에너지 전문가들이 대응전략 등을 학습하여 일부

결과물을 발간한 것입니다.

- 이는 위기가 상시화, 거대화, 복합화 되는 흐름 속에서 코로나-19와 같은 위기 대응 능력 뿐만 아니라 다른 위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을 때,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성장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았습니다.

② “탈원전 프레임, 정권 교체되면 180도 바뀔지 몰라”

☞ (책내용) P153 “정권을 초월한 장기적 에너지 위기 진단과 평가 및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”

- “정권을 초월한”의 의미는 위기가 상시화 되면서 어느 한 정권에만 발생하는 위기가 아닌 “중장기적인” 의미로 사용하였습니다.

③ “재생에너지 출력 들쭉날쭉, 원전없이 전력 수급 불안”

☞ (책내용) “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와 더불어 빠른 전기화 진행속도와 탈탄소화 등으로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 심화 가능”

- 많은 전문가들이 전력 계통의 불안정성을 언급하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으나 “원전 없이 전력 수급 불안”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.

④ “산업부가 에너지 정책 담당 부처로서 결기를 보였다”

- 이는 책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코로나-19 등의 위기에 대응하고자 학습을 진행하였으며 어떠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지 않았음을 알려 드립니다.

※ 문의: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최우석(044-203-5350),
신에너지산업과 송용식 서기관(5394)